

# 문헌정보학과 현장분야로서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alue of School Libraries in the LIS(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Field of Libraries in Korea

김 성 준(Sung-Jun Kim)\*\*

### < 목 차 >

I. 서론	확보 수단으로써 학교도서관
II.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과 현황	2. 연구분야로서 학교도서관
1. 학교도서관의 발전요인과 과정	3. 현장진출 분야로서 학교도서관
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현황	V.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한 과제
III. 사서교사의 자격과 선발	1. 전담인력의 배치방향과 법제화
1. 사서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2. 전문성 높은 사서교사 양성과 연구기반 확보
2.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선발과 임용	VI. 결 론
IV. 학교도서관의 가치	
1.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	

###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과 현장분야로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규명하고, 가치실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 학교도서관은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는 초·중고 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문헌정보학의 지속적 연구분야로서 그리고 양질의 사서직 진출분야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도서관계의 협력과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성 높은 사서교사의 양성과 더불어 학교도서관 현장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문헌정보, 사서교사, 사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lue of school libraries and to find ways to realize the value after examining school libraries and teacher librarians in Korea. According to this study, school libraries can be useful resource to promote Koreans' social perception in all types of libraries and the LIS because school libraries are accessible to those who experience public education. As a major area of research and the field in the LIS, school libraries have strong possibilities to produce qualified librarians. The cooperation among librarians and legislative proceeding to staff full-time teacher librarians, and the expansion of school library researchers to activate field researches are needed in order to maximize the value.

Keywords: School libra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eacher librarian, Librarian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북 이리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hakdoman@gmail.com)

• 접수일: 2013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2월 27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I. 서론

학교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도서관 관종으로 아직까지 사회전반과 교육계, 그리고 심지어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 역사가 짧기 때문이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더 이상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사서교사와 소수의 학교도서관 연구자들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노력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만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관종의 도서관과 동일하게 학교도서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심지어 도서관계 내부의 굳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학교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관점인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시설 혹은 있으면 좋은 시설'을 '학생의 학습과 학교교육의 필수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은 곧 학교도서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 주요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도서관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더불어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도서관인은 없다. 그러나 이 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진출하는 각 사서직의 특성과 전문성에 대한 상호존중과 협력이 도서관계 내부에서부터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담인력의 배치와 사서교사의 자격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이러한 내부의 상호존중과 협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의 학교도서관은 비단 이러한 내부의 협력부족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지원의 유명무실화와 사서교사 배치의 불투명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더 이상의 발전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학교도서관이 지금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도서관의 사회적, 교육적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헌정보학과 그 진출분야로서 학교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를 도서관계 내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학교도서관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전체에 걸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인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킬 수 있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를 평가해 보고,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대비되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직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학교도서관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연구분야, 현장진출 분야의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이 지닌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고, 셋째, 이 가치실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과 현황

### 1. 학교도서관의 발전요인과 과정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 미성년 학생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중의 도서관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다른 관중의 도서관과 비교되는 학교도서관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최근에 어떤 역할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학교도서관 수준을 일률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나라의 학교도서관 모델이 우수한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ebecca Knuth는 1995년에 주요 학교도서관 모델을 영국과 미국모델로 구분하고, 학교도서관 기준, 직원배치와 자격제도, 정부지원과 기금, 운영원리, 전문직 단체의 5개 요인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두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였다.<sup>1)</sup>

<표 1> 학교도서관 발전요인을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학교도서관의 비교

구분	영국모델	미국모델	
주요 특징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일부로 학교도서관 지원 전문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 더딘 발전속도와 교육계의 인식확보 실패	통합 매체센터 형태 교육제도 내에서 재정확보와 확실한 관리체제 구축 교사자격과 사서자격을 모두 지닌 사서교사 배치 현대의 학교도서관 모델로 세계적 평가확보	
요인	기준	두 전문직 단체(SLA와 LA)의 각기 다른 기준 체시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정치적 실질적 영향력이 희석되어버림	한 전문직 단체(AASL)의 공식적이며 일관적인 기 준체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의 합의 도출
	직원배치와 자격제도	사서교사(교사+사서)와 전문사서의 이중 배치 체제로 자격제도의 혼란과 배치인력의 전문성 부족	사서와 교사(다른 교과목)의 자격을 모두 지닌 사서 교사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배치시킴으로써 양성과 정과 현장에서의 전문성 향상
	정부지원과 기금	교육기금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 명확한 정부정책의 부족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기금지원 각 주별 학교도서관 관리체제 확립
	운영원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확보와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함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 으로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학교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설정
	전문직 단체	학교도서관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SLA와 LA로 양분화되었고, 두 단체 모두 학교도서관계의 주 도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	AASL이 미국 학교도서관계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 보하고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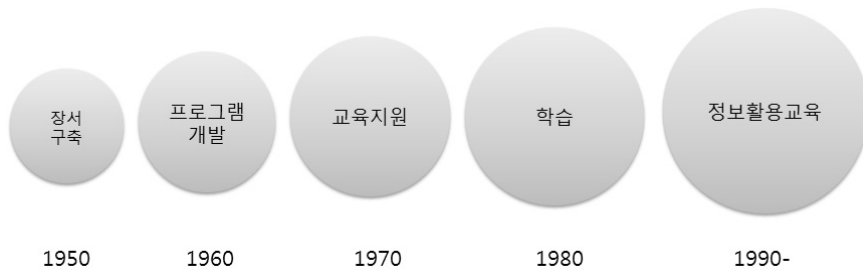
1) Rebecca Knut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Vol.27, No.3(Jun, 1995), pp.270-27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영국과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학교지원 서비스에서 출발하였지만 두 모델의 발전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학교도서관은 교과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여 휴식시간에 자료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형태 즉, 학교교육의 보조기관으로 발전했고,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교육지원을 위한 통합매체센터로 변화하여 점차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을 위한 주요 교육시설로 위상을 확립해 갔다.<sup>2)</sup>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전담인력의 배치문제는 나머지 발전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격제도가 사서교사 체제로 전문화된 반면, 영국은 전담인력의 배치에 관해서 전문직 단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영국 학교도서관협회(School Library Association)는 사서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배치를 주장하였고, 영국 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는 전문사서의 배치를 주장하였다. 결국 두 전문직 단체는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전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 정부를 상대로 한 학교도서관의 지원요구 등에서 일치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학교도서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sup>

결과적으로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여러 학교도서관 모델 중에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의 학교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우리 학교도서관이 극복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본격적 발전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미국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미국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

발전과정을 명확하게 시기를 나누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학교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기준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미국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은 장서구축,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 학습, 정보활용교육으로 정리될

2) *Ibid.*, pp.266-270.

3) *Ibid.*, p.267, 273.

수 있고, 각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는 각 교실에 산재된 자료를 도서관이라는 시설에 집중시켜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였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발사를 계기로 미국정부는 학교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이 예산을 이용해서 많은 공립학교에서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는 집중된 장서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자료이용방법을 가르쳤고, 이를 위해 도서관이용지도와 독서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70년대는 그동안 학교도서관만의 독립적 역할에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교과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교육개혁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교실중심의 교육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심층적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sup>4)</sup>

이상의 과정을 거쳐 미국 학교도서관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활용교육으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미국학교도서관협회는 1998년에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sup>5)</sup>이라는 국가수준의 기준을 통해 교과의 학습주제와 정보활용능력을 연계하는 방식의 정보활용교육을 학교도서관의 핵심적 역할로 제시하였고, 학교도서관 경영과 정보제공도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요소로 규정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정보활용교육의 목표, 내용, 전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미국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은 전 세계 주요국가의 학교도서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sup>7)</sup> 일본의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sup>8)</sup> 영국 학교도서관협회,<sup>9)</sup> 호주학교도서관협회<sup>10)</sup>와 같은 각 국가의 대표적 학교도서관 전문직 단체들도 모두 교수학습,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협력과 같은 기능을 학교도서관의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기능인 정보자료 제공에서 학교 교육지원과 정보활용교육의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 학교도서관의

4) Barbara K. Stripling, "Quality in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Focus on Learning," *Library Trends*, Vol.44, No.3(Winter 1996), pp.633-637.

5)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Chicago and London : ALA, 1998)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김병주 역, 정보의 힘 - 학교도서관을 위한 협동체제 구축(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으로 번역되었다.

6)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2007.

〈<http://www.ala.org/aasl/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standards/standards>〉 [cited 2012. 10. 11].

7)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http://www.ksla.net>〉 [인용 2012. 10. 11].

8)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http://www.j-sla.or.jp>〉 [cited 2012. 10. 11].

9) SLA 〈<http://www.sla.org.uk>〉 [cited 2012. 10. 11].

10)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http://www.asla.org.au>〉 [cited 2012. 10. 11].

교육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의 제도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학교교육과 학생의 학습지원이라는 운영원리의 설정, 그리고 이상의 방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직 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요인들의 확보와 달성여부에 따라 향후 학교도서관의 발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현황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교도서관의 발전역사는 1952년 진주여고 도서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까지 경남, 서울, 인천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사서교사가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선구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지만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심화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침체와 쇠퇴의 기간을 맞게 되었다.<sup>11)</sup> 따라서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없이 부족한 장서와 시설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결과, 2002년 정부에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이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현황을 학교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학교도서관 기준, 직원의 배치와 자격지도, 정부지원과 예산, 운영원리, 전문직 단체의 활동 측면에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정책을 통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전체 사서교사 702명<sup>12)</sup>중의 대부분의 사서교사가 이 기간 동안 배치된 점은 상당한 진전으로 손꼽을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초기에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교육이론이 취약하고 사서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였지만, 점차 학교도서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연구되고, 사서교사가 현장경험을 통해 교육사례를 축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과 같은 기초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은 정착되었고, 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서를 개발하고 협력수업을 시도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즉,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6.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sup>13)</sup>

11)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pp.24-31.

12)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p.459.

13) 상계서, p.127.

〈표 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현황

발전요인	발전현황
기준	국내 최고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도서관 기준 <sup>14)</sup> 과 교육과정기준 <sup>15)</sup> 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기준이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의 성격이 선언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직원배치와 자격제도	사서교사의 자격제도, 선발, 임용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sup>16)</sup> 사서교사의 배치에 관해서는 양성 기관, 연구자, 현장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전담인력이 사서교사, 사서, 실기교사로 폭넓게 규정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지원과 기금	2002년부터 5년간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전국 약 11,000여개의 학교 중에서 95%의 학교에 교실 2.4칸 규모의 학교도서관 시설을 갖추었지만 <sup>17)</sup> , 이후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정책이 유명무실해 지고, 학교도서관의 관리체계가 사도교육청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운영원리	정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정책으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육계 구성원의 인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sup>18)</sup>
전문직 단체	학교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로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조직규모와 활동력의 한계로 인해 각종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정책을 유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sup>19)</sup>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을 미국의 발전과정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미국은 정보활용교육까지 60년간의 점진적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모든 변화를 최근 10년 동안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계의 인식확보, 사서교사의 현장적응과 역할충돌, 학교도서관 제도와 법규, 사서교사의 자격제도와 배치 등의 문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각 계의 인식차이와 충분한 준비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넘어 우리 학교도서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 특별위원회, (2003년판)한국도서관 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p.71-92.  
 15)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교육과정 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16) 이병기,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29-135.  
 17) 노영희, 홍강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250-251.  
 18) 송기호, “사서교사의 허약한 직업적 존재감 실태와 출구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5), pp.312-313.  
 19) 김성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p.216-217.

### Ⅲ. 사서교사의 자격과 선발

#### 1. 사서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형태와는 별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서교사의 자격을 학위, 교육과정, 현장경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사서교사 자격취득 기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국가의 사서교사 자격<sup>20)</sup>

국가	자격	주요자격
한국 <sup>21)</sup>	1급 1.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	사서+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	
일본 <sup>22)</sup>	학교도서관법 제5조에 규정된(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강습규정(문부성령 제21호)에 따라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면허(자격)를 가진 자로 사서교사 강습을 이수한자 또는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는 학생으로 62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사서+교사
영국 <sup>23)</sup>	교사자격과 공인사서자격을 모두 취득 * 사서자격 취득방법 : 사서자격유형에 따라 다르나 대표적인 MCLPI자격은 CILIP(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서 인가한 문헌정보학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은 후, 전문포트폴리오를 CILIP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자격을 신청	사서+교사
미국 <sup>24)</sup>	각 주별로 자격제도가 다르나 많은 주에서는 다른 교과의 교사자격을 취득한 후에 대학원에서 사서자격 취득 * 사서자격 취득방법 : ALA인가 혹은 NCATE(National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인가 대학원 프로그램 이수 후 석사학위 취득	사서+교사

20) <표 3>에 제시된 사서자격의 취득방법은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며, 각 국가 및 자격별로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는 다양하다.(정동열,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8-14.

21)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2012. 1. 26)

22) 권은경,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104.

23) SLA <<http://www.sla.org.uk/qualifications-in-librarianship.php>> [cited 2012. 10. 11].

24) AASL <<http://www.ala.org/aasl/aasleducation/recruitmentlib/libraryedu/libraryeducation>> [cited 2012. 10. 11].



〈표 3〉에 제시된 주요 국가의 자격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사서교사 자격은 사서와 교사자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개별 국가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제학교도서관연맹도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sup>25)</sup> 즉, 사서교사의 자격은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량과 학교도서관을 경영하는 사서로서의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도서관은 이러한 전문가에 의해 경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그러나 일본, 영국, 미국은 사서교사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과교사가 법규에 규정된 소수의 도서관 과목을 이수하여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과 더불어 문헌정보학 학사 혹은 석사의 교육과정, 현장경력,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타 교과의 교사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통상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국가에서 사서교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서교사의 자격취득 경로가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와의 학부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문헌정보학과와의 교육과정 이외에 교직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중점은 주로 사서자격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가별 교원양성체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서교사의 전문성 및 역할수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자격을 기반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방식의 경우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이 사서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보다 비교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의 학교도서관에서 강조하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등의 직접수업에 보다 적합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양성체제는 학교도서관 경영과 장서관리의 전문성 습득에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서교사 자격제도는 도서관계 내에서 '동일한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자격과 역할이 사서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현장에 진출한 사서교사에게는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한 전담인력의 배치문제와 신규 사서교사의 직무적응의 어려움,<sup>27)</sup> 현실적 역할과 지향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sup>28)</sup>, 직업적 존재감의 부족<sup>29)</sup> 등의 연구는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한계,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25) 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

(<http://www.iasl-online.org/about/handbook/policysl.html>) [cited 2012. 9. 14].

26) 김성준, "사서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261.

27) 김종성, "사서교사의 직무적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237-268.

28) 김성준, 전개논문, pp.249-270.

실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서교사의 자격제도와 양성제도를 단기간에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양성제도 내에서 사서교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 자신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문헌정보학과와 학교도서관계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선발과 임용

사서교사로 현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여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배치된 전체 사서교사 702명 중에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공립학교로 임용된 사서교사는 534명<sup>30)</sup>으로, 전체의 76%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주요 진출분야는 공립학교라 할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의 선발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사서교사의 경우 자격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으로 실시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표 4>의 교육학과 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sup>31)</sup>

<표 4> 사서교사 임용시험의 평가내용

시험과목	세부과목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총 8과목)
전공(사서교사)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총 8과목)

사서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과목은 교육학과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교육학은 교육학개론을 포함한 8개 과목, 그리고 전공은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의 8개 기본이수과목을 평가범위로 하고 있다.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차 교육학 및 전공 선택형, 2차 전공논술, 3차 교직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기로 실시되었지만 2012년에 선발시험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1차 교육학과 전공의 기입형,

29) 송기호, 전계논문, pp.312-313.

30) 김성준, 서진원,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양성현황과 수급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171.(이 자료에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현황이 수록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2년 자료는 시·도교육청 임용공고를 통해 확보하였다.)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인용 : 2011. 10. 1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7호(2008. 8. 1)

서술형, 논술형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으로 선발과정이 간소화 될 예정이다.<sup>32)</sup> 그러나 사서교사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수업능력시험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면접평가만 실시되었다.

중등교사 선발시험은 2008년 이전까지 기본이수과목 명칭만 제시되었을 뿐 평가영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부터 각 교과목의 평가영역, 내용요소, 문항 수, 출제비율을 확정하여 제시하였다. 전공 8개 과목 중에서 분류학의 평가영역과 내용요소는 <표 5>와 같다.<sup>33)</sup>

<표 5> 사서교사 전공과목의 평가내용 및 요소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 내용요소
분류학	분류이론 및 역사	분류의 개념과 원리 / 분류의 종류와 필요성 / 분류표의 요건과 종류/ 분류작업과 분류 규정 / 동서양의 자료 분류사
	주요분류법	KDC, DDC, LCC, UDC, CC 등의 발전, 기호법, 구성, 특징 및 평가
	청구기호	청구기호의 개념, 기능, 구성 및 적용
	분류의 실제	KDC, DDC의 본표 및 보조표의 적용

이처럼 사서교사 선발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받는 방식이다. 특히, 평가내용은 교육학을 제외하더라도 문헌정보학의 주요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8개 과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서직 시험에 비해 평가과목의 수가 많은 편이다. 대표적 공공도서관 진출 분야인 사서직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론, 정보봉사개론의 5개 과목이 평가대상이며<sup>34)</sup> 이 중에서 전공은 2개 과목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공영역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발과정을 거쳐서 임용된 사서교사는 교원신분으로 시·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따라 공립학교에 배치되고 일정기간을 주기로 다른 학교로 전보되면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사서교사의 역할은 국내외의 각종 기준과 법규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의 업무가 운영계획, 자료수집 및 관리, 도서관교육,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sup>35)</sup> 사서교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실기교사 및 사서와 동일하게 제시됨에 따라 사서교사의 역할 고유성과 전문성 유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 역할은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인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3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5호(2012. 8. 2).

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시과목별 중등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http://www.kice.re.kr>> [인용 : 2011. 10. 11].

34)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3644호(2012. 2. 29).

35)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법률 제11310호(2012. 2. 17).

learning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교수파트너, 정보전문가, 학교도서관 경영자의 역할<sup>36)</sup>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역할들이 최근의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일반적 역할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 IV. 학교도서관의 가치

### 1.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확보 수단으로써 학교도서관

도서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문화적 성숙과 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도서관발전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도서관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서관인프라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도서관인프라와 이용대상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1970년에 58개관, 1980년에는 120개관에 불과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420개관, 2006년에 564개관으로 늘어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1개관 당 봉사대상 인구도 86,865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37)</sup> 학교도서관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대학진학률을 통해서 이용대상자의 대략적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대학진학률은 일반계고를 기준으로 1970년부터 1990년까지는 30~40%수준이었지만, 1995년 72%, 2000년에는 84%로 늘어났다.<sup>38)</sup> 즉,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도서관 수와 이용대상자의 변화상황을 종합하면 우리국민은 1990년대 후반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매우 적었고, 본격적인 도서관이용도 대학생과 같은 성인이 되어서야 시작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비교적 나아졌다고 평가되는 지금의 도서관문화를 경험하는 세대는 주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한 현재 십대 청소년에 불과하다.

도서관문화를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유도하여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것

36) AASL & AECT, *op. cit.*, pp.4-5.

37)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46.(2011 도서관연감에 제시된 공공도서관 수는 759개이다).

38)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인용 2012. 6. 14].

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초·중·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어린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도서관 이용의 직접경험은 향후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란 학생들은 이후 우리사회의 도서관 이용자이자 관리자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시민이 된다.

둘째, 사서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문헌정보학에서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과 진로분야로서 사서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홍보수단이며,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서관습관을 교육시키는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얻은 성공적인 도서관 경험은 이후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전체의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 2. 연구분야로서 학교도서관

문헌정보학은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 성격을 띤 독자적 학문분야이다.<sup>39)</sup> 문헌정보학 연구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도서관은 목적과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구분된다. 즉, 학교도서관은 주요 도서관 관종 중의 하나이며, 학교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주체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학교도서관 분야의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경영, 사서교사, 법규, 독서교육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학생의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연구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정숙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 논문의 주제별 기준에는 학교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39)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137.

동안 발표된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 1,439편에서 독서교육 논문은 156건,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논문은 106건으로 전체 학위논문에서 1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의 논문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02년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자료기반학습, 도서관활용수업,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sup>40)</sup>

전재영과 박진희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현장연구로 정의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통해 생산된 현장연구 691건을 도서관 관종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관련논문이 246건(35.6%), 대학도서관 관련논문이 238건(34.4%), 학교도서관 관련논문이 141건(20.4%), 기타 66건(9.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현장연구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sup>41)</sup>

비록 학교도서관 연구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한 동향은 아니더라도 이상의 선행연구는 학교도서관이 문헌정보학의 주요 분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학교도서관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연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문헌정보학의 주요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전체 논문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주요 학회지의 학교도서관 논문 현황

연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계(%)	
	생산 논문	학교도서관 논문*	생산 논문	학교도서관 논문	생산 논문	학교도서관 논문	생산 논문	학교도서관 논문	생산 논문	학교도서관 논문
2011	71	3	71	10	68	4	61	0	271	17(6.27%)
2010	67	3	65	7	53	2	60	0	245	12(4.90%)
2009	67	4	76	13	59	4	67	0	269	21(7.81%)
2008	76	7	90	7	20	2	60	3	246	19(7.72%)
2007	70	5	93	16	22	1	62	1	247	23(9.31%)
2006	75	0	74	13	30	2	61	1	240	16(6.67%)
2005	58	7	74	4	25	1	59	1	216	13(6.02%)
2004	60	1	77	7	25	0	58	0	220	8(3.64%)
2003	56	5	66	5	24	7	60	4	206	21(10.19%)
2002	59	3	57	2	27	4	45	0	188	9(4.79%)
계	659	38(5.77%)	743	84(11.31%)	353	27(7.65%)	593	10(1.69%)	2,348	159(6.77%)

\*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에서 ‘학교도서관’ 혹은 ‘사서교사’를 포함하는 논문

40) 송정숙,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347-350.

41)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85-188.

학교도서관 논문의 판단기준은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 중에서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인 '학교도서관' 혹은 '사서교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비록 논문주제와 내용이 학교도서관과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저자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4개 학회지를 통해 생산된 전체 논문은 총 2,348개로 조사되었고, 이 기준에 부합한 학교도서관 논문은 159건으로 전체 연구의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학회지 중에서 학교도서관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통해 가장 많이 생산되었는데, 10년간의 전체논문 743건 중에 84건(11.31%)이 학교도서관 논문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4개 학회지를 통해 총 247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 논문은 23편으로 그해 전체 논문의 9.31%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현황은 그동안 학교도서관이 문헌정보학의 관심분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내의 제한된 연구자와 학교도서관의 짧은 역사를 고려하면 그동안 발표된 학교도서관 논문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고, 학교도서관의 경영원리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계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 3. 현장진출 분야로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도서관계의 관심이 학교도서관에 집중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문헌정보학의 현장진출 분야로서 학교도서관의 가능성이었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인 사서교사직의 특성을 문헌정보학의 다른 진출분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원과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를 제외하고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주요 경로는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만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40명 정원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뿐이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선발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의 주요 8개 과목에 대한 전공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부과정을 마치고 진출하는 국내 사서직과 비교하여 전공능력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서교사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은 문헌정보학의 현장전문가로서 그리고 향후 연구인력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직업적 처우에서 살펴보면, 사서교사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로서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도 62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임용되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9급 공무원이 1호봉부터 시작되는 점과 비교하면 사서교사는 교직과정 8호봉, 사범대학 9호봉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진출분야 중에서 직업적 처우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셋째,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사서교사직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속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

성을 높게 인정받으며 다른 교사직과 동일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이다. 이는 직급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직급별 승진에 대한 부담이 큰 일반 행정직 및 사서직 공무원과는 차별화되는 사서교사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장분야로 학교도서관, 특히 사서교사직은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의 상황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주요 관종별 도서관 수와 소속 사서직 인원을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sup>42)</sup>

<표 7> 국내 주요 관종의 도서관과 사서직 현황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3	251	759	3,175	434	2,188	589	299	11,461	4,777 사서교사 702 사서직원 4,075

결과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은 지난 10여년 동안 4,777명의 사서직을 수용한 대표적 현장분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사서교사는 702명에 불과하고, 주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4,075명의 사서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도서관계 전체로 놓고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 양상은 향후 문헌정보학과 사서직 전체에 걸쳐 다음의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다수의 비정규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는 우리사회의 많은 국민과 정책입안자에게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사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공식을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넘어 문헌정보학과 사서직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4,075명의 비정규직 사서와 함께하는 학생은 한 학교당 평균 610명, 전국적으로 248만명<sup>43)</sup>이나 되며, 이들이 바라본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인식은 곧 우리사회의 문헌정보학과 사서직에 대한 전반적 인식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48만명의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248만명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학교도서관 배치인력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과연 도서관계의 역량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담인력의 전문성은 곧 학교도서관의 역할수행 수준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의 배치는 단기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서교사의 추가배치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양상을 결

42)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pp.434-461.

43)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인용 2012. 6. 14] (2011년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6,977,847명, 분교를 제외한 학교 수는 11,317개교로 나타났다. 아래 <표 8> 참조).



정직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담인력의 배치에 대한 갈등과 의견 불일치가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영국 학교도서관의 사례가 곧 우리의 미래로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학교도서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사서직 일자리를 만들고 다수의 사서를 배출시키는 것은 모든 도서관인의 공통된 바램이며, 그 여부가 문헌정보학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서직의 진출 분야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비록 도서관 관종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 수치상으로 11,461개의 학교도서관 수는 이상의 모든 관종을 합한 수를 압도한다. 단순히 한 학교도서관 당 한명의 인력으로 계산하면 현재 배치된 사서교사와 사서직 전체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684명이란 숫자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고, 이 인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배치된 사서직 5,913명을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많은 수의 사서직을 학교도서관에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다수의 인원배치는 비용의 문제,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 사서의 배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은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직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 V.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한 과제

### 1. 전담인력의 배치방향과 법제화

학교도서관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문화의 홍보도구로, 연구분야로, 그리고 사서직의 진출분야로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사서교사의 배치이다. 이 문제는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이며, 학교도서관 현장의 사서교사에게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sup>44)</sup>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린다. 우선, 그동안 제기된 비관론의 논거로는 이미 비정규직 사서의 배치는 현실화되었고, 2002년 학교도서관 정책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최근 4년간 사서교사의 배치 인원은 34명으로 줄어들었고,<sup>45)</sup> 도서관계 내부에서 조차 사서교사 혹은 사서로 엇갈리면서 합의를 도

44) 김성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p.219-220.

45)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고한 사서교사 채용공고 현황은 2009년 9명, 2010년 24명, 2011년

출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할 도서관계의 역량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논거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사서교사의 지속적 배치는 가능하며, 2006년 154명, 2007년 104명, 2008년 105명으로 3년간 총 363명<sup>46)</sup>의 사서교사가 배치된 실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상의 비판론과 가능성을 떠나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의 문제는 전적으로 도서관계의 역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도서관계의 내부의 의견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의 유형에 대해 도서관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게 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 관종으로 이해할 경우 사서의 배치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최근의 학교도서관 발전방향과 사서교사의 핵심적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서교사와 사서직원 중에서 어떤 유형이 보다 유리하며, 각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 것인가? 셋째, 현재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직은 만약 선택이 가능하다면 사서교사와 사서직원 중에서 실제 어떤 신분을 선호할 것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사서교사이다. 따라서 그동안 도서관계의 노력으로 법제화된 사서교사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자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도서관계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미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4,075명의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거시적 측면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동일한 도서관인이며, 학교도서관 인력배치는 그들에게는 도서관의 발전을 떠나 생존의 절박한 문제이며, 이미 현실이 된 현상을 도외시한 합의의 가능성은 낮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거론할 만큼 이들의 처우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7)</sup>

결과적으로 현재 배치된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현실 인정과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향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학생 1500명당 1명<sup>48)</sup>을 기준으로 전담인력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 8>과 같이 전담인력의 전체 필요 인력은 4,652명에 불과하다. 즉, 법에서 규정한 인원이 이미 배치된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서교사의 추가배치는 어렵다.

0명, 2012년 1명으로 나타났다.

46)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서교사 임용현황이다.

47) 대구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방식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2013. 1. 16),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하고 있다(2013. 5. 1. 시행).

48)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035호(2012. 8. 13).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 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대상자인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담인력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 방법이기 때문에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과 동일한 정원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전국 11,317개의 학교 수에 근접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학생 700명당 1명의 배치기준이 필요하다.<sup>49)</sup>

〈표 8〉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설정

구분	학교급	학교 학생 수 <sup>50)</sup>	계	1,500명 기준 전담인력	700명 기준 전담인력	현 배치인력
학교*	초등학교	5,882	11,317	4,652명	9,968명	4,777 사서교사 702 사서직원 4,075
	중학교	3,153				
	고등학교	2,282				
학생	초등학교	3,132,477	6,977,847	4,652명	9,968명	4,777 사서교사 702 사서직원 4,075
	중학교	1,910,572				
	고등학교	1,934,798				

\* 분교를 제외하였다.

이 경우 기존 배치된 전담인력 4,777명을 제외한 5,191명의 신규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 숫자는 향후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에 걸쳐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이 인원 전체를 사서교사로 충원한다 하더라도 현재 배치 인원을 고려하면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59%,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직 41%의 비율로 전담인력이 배치되게 된다. 즉,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사서직을 배치하자는 주장을 '학생 700명당 1명'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은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사서의 자격취득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서교사와 사서직의 역할구분과 상생 협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2. 전문성 높은 사서교사 양성과 연구기반 확보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학교도서관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학교도서관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전문성 부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문헌정보학과 중심의 사서교사 양성체제는 사서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불리한 구조이다. 사서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타 교과와 같이 사범대 중심의 양성체제가 바람직하지

49) 학생 600명당 1명의 경우 전담인력 수가 학교 수를 초과하며, 전체 학교 수에 가장 근접한 배치 인원은 약 700명이다.

50)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인용 2012. 6. 14].

만 현행 제도 내에서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성 높은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으로는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편성과 보완, 사서교사 교육실습의 내실화, 사서교사 선발과정에서 타 교과와 동일하게 수업능력 평가 실시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각 문헌정보학과와 실질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의 학교도서관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된 일부 교수와 현장의 소수 연구자에 불과하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만큼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연구는 곧 학교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수행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중심의 이론개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현장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선발과 임용과정 통해 높은 전문성을 습득한 사서교사는 첫째,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인적자원 중에서 미래의 연구자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비교적 안정된 직업적 특성을 지니며, 셋째,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문화가 상위 학위의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석·박사의 연구과정을 이수하는데 보다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서교사가 진학을 통해 문헌정보학 특히, 학교도서관 연구자로 성장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규명하고, 경험을 일반화시키며, 학교도서관의 이론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문헌정보학의 석사과정은 28개 대학, 박사과정은 16대학, 교육대학원은 16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고 있다.<sup>51)</sup> 이 중에서 교육대학원은 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문헌정보학의 경우 사서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연구인력의 확대를 위해서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각 대학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현직 교수는 사서교사 제자들이 향후 문헌정보학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 지도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1) 한국도서관협회, 전게서, pp.425-427.(현재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16개 대학은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이다).

## VI. 결 론

문헌정보학의 주요 현장분야인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 조직 및 경영구조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보다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문헌정보학, 도서관, 도서관인이 긍정적 영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각 진출분야에 대한 특성과 소속된 사서직의 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며, 더불어 각 분야가 지닌 장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여러 문헌정보학 진출분야 중에서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학생의 학습과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 시설과 장서는 확충하였지만 아직까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서와 교사자격을 모두 갖춘 사서교사에 의해 학교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서교사의 자격체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요 임용분야인 공립학교의 선발과 임용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는 교원의 양성과 선발 등의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사서교사는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의 10%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선발과정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여러 절차에 걸쳐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상의 과정을 통과한 사서교사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출한 인재로서 높은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과 현장분야로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이용대상은 국민대다수가 경험하는 초·중·고 학생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은 문헌정보학에서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점차 연구범위와 주제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 사서교사직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진출하는 양질의 현장분야이며, 미래의 사서직 진출분야로 여전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며, 현재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무자격 전담인력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구조를 향후에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성 높은 사서교사를 양

성하고 현장의 사서교사가 문헌정보학의 연구자로 성장하여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학교도서관 분야의 이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달리 학교도서관은 국민 모두가 성장과정에서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이 점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곧 전체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향상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학교도서관의 가치실현은 곧 문헌정보학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은경.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p.95-128.
- 김종성. “사서교사의 직무적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237-268.
-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 김성준. “사서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249-270.
- 김성준. “한국학교도서관협회의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p.203-225.
- 김성준, 서진원.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양성현황과 수급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161-186.
-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인용 2012. 6. 14].
- 노영희, 홍강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243-271.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송기호. “사서교사의 허약한 직업적 존재감 실태와 출구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5), pp.317-337.
- 송정숙.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333-353.
- 이병기.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27-149.
-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31-54.

- 정동열.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5-29.
-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11. 6), pp.171-19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용 2012. 10. 11].
-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 특별위원회. (2003년판) 한국도서관 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교육과정 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sla.net>> [인용 2012. 10. 11].
-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Homepage. <<http://www.j-sla.or.jp>> [cited 2012. 10. 11].
- AASL Homepage.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2007.  
<<http://www.ala.org/aasl/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standards/standards>> [cited 2012. 10. 11].
-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Chicago and London: ALA, 1998.
- ASLA Homepage. <<http://www.asla.org.au>> [cited 2012. 10. 11].
- IASL Homepage. <<http://www.iasl-online.org/about/handbook/policysl.html>> [cited 2012. 9. 14].
- Knuth, Rebecca.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Vol.27, No.3(Jun. 1995), pp.265-282.
- SLA Homepage. <<http://www.sla.org.uk>> [cited 2012. 10. 11].
- Stripling, Barbara K. “Quality in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Focus on Learning.” *Library Trends*, Vol.44, No.3(Winter 1996), pp.633-637.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omepage. <<http://cesi.kedi.re.kr>> [cited 2012. 6. 14].
- Chung, Jae-Young and Park, Jin-Hee.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2(Jun. 2011), pp.171-191.
- Jeong, Dong-Youl. “A Study on th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1, No.2(Jun. 2007),

pp.5-29.

Kim, Jong-Sung.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Occup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Daegu and Gyeongsangbukdo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1(Mar. 2005), pp.237-268.

Kim, Jong-Sung. *A study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Ph.D.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Kim, Sung-Jun and Suh, Jin-Won. "The Study on the Present Educational Aspect of Korean Teacher Librarians and Their Supply-demand Proble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3(Sep. 2008), pp.161-186.

Kim, Sung-Jun. "A Study on Korean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 of Expertis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3(Sep. 2009), pp.249-270.

Kim, Sung-Jun. "A Study on the Strategic Plan of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2(Jun. 2012), pp.203-225.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Homepage. <<http://www.kice.re.kr>> [cited 2012. 10. 11].

Korea Library Association, *Hanguk Doseogwan Yeongam*. Seoul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 Library Associ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Gyogwa Gyoyuk Gwajeong Gijun*. Seoul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7.

Korea Library Association. *Korea Library Standard*. Seoul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 Library Association.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nd ed. Seoul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0.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http://www.ksla.net>> [cited 2012. 10. 11].

Kwon, Eun-Kyung. "The Amend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law and The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8, No.2(Jun. 2004), pp.95-128.

Lee, Byeong-Ki. "A Comparative Analysis Teachers' Certification and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 and U.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2(Jun. 2011), pp.127-149.



- Noh, Young-Hee and Hong, Kang-Pyo. "An Evaluation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1, No.1(Mar. 2007), pp.243-271.
- Song, Gi-Ho. "A Study on the Status and Gates of Teacher Librarians' Frail Vocational Pres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2(May 2010), pp.317-337.
- Song, Jung-Sook.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4(Dec. 2010), pp.333-353.
- Yoon, Hee-Yoon. "Policy Issues and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1, No.2(Jun. 2007), pp.31-54.